

#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 :

## 사회정의와 평등을 일구어온 여성과 소수자들의 역사와 담론

일시 • 2020년 2월 6~27일,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 |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20호

한국 사회에서 반차별 담론과 운동은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의 영향과 연대의 역사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기획한 이 강좌는 페미니즘과 반차별/차별철폐/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문제의식을 여러분과 함께 탐색하고 나누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 강좌는 여성들이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에 맞서 싸워온 페미니즘의 역사와 담론을 살펴 보면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절실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페미니즘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의제도 여러분과 함께 탐색합니다. 모쪼록 반차별 투쟁의 역사와 현재를 함께 살펴보는 이 강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작지만 분명하게 기여하는 실천과 연대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1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다음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강의지원 •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네트웍)  
강의안 번역 • 김우희 (난민인권센터 자원활동가)  
토론문 번역 • 류태림 (난민인권센터 자원활동가)  
강의현장 통역 • 김지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 • 1강 진행 : 박미선 (여성문화이론연구소)

1강	2월 6일(목)	난민 혐오와 '인종주의' 페미니즘을 벗어나 김보명(부산대 사회학과) × 야스민(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2강	2월 13일(목)	'여성' 범주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에서 차별을 질문하기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박한희(SOGI법정책연구회)
3강	2월 20일(목)	코르셋으로부터의 해방은 어디로 연결될 수 있을까 송유진(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 몽(인권운동사랑방)
4강	2월 27일(목)	페미니즘 이슈로서 차별금지법 서영(유니브페미) × 오매(한국성폭력상담소) × 이진희(장애여성공감)

# 1강. 난민 혐오와 ‘인종주의’ 페미니즘을 벗어나

장의 • 김보명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2018년 여름 즈음 나는 여러 개의 토론회와 행사들에 참석하였고 난민(문제)와 페미니즘에 대한 짧은 발표문들을 썼다. 당시의 급박하고 히스테릭한 상황 속에서 당장의 혐오와 배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했고 짧은 호흡과 사유였지만 페미니즘의 난민에 대한 관계가 혐오, 배제, 편견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1년 6개월이 지나갔고 그때의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응답이 나왔고, 미투운동과 불법촬영 편파수사 반대시위와 낙태죄 폐지운동이 일정한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낸 지금, 우리는 페미니즘과 난민,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떤 질문과 논의를 진행해야 할까?

2018년 여름,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이 있었다. 기후위기와 더불어 찾아온 유례없는 폭염만큼이나 견디기 어렵게 뜨거웠던 난민혐오의 정동과 담론은 답해지지 못한 질문들과 과제들을 남기면서 일단락되었다. 그해 12월에 마무리되고 발표된 난민심사 결과는 549명의 난민신청자 중 2명에 대한 인정과 412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sup>1)</sup>로 나왔다. 언제나 그렇듯 배제를 위한 경계 전쟁에서는 너무도 시끄러웠던 언론과 보수 집단은 이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예멘인들의 안부에 대해서는 사뭇 무심하다.

촛불 광장 이후에, 미투 선언과 불법촬영 편파수사 반대시위와 낙태죄 폐지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일어난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거리들을 남겼다. 난민반대 시위들에서 등장했던 ‘국민이 먼저’라는 구호에서부터 그 시위를 조직한 집단이 전략적으로 배포하고 활용했던 ‘(무슬림 남성과 이주민에 의해) 강간당하는 (우리) 여성’의 이미지에서부터 이러한 편견과 혐오를 문화적, 사회적 현실로 구성해냈던 가짜뉴스와 탈진실의 정치학과 ‘문화’로서의 가부장제와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와 오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와 이주민 혐오와 여성의 안전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치학에 대한 고민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시급한 문제들로 다가왔다. 물론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신속한 대안은 떠오르지 않았다. 복잡하게 얽힌 혐오의 매듭들을 독해하고 따라가는 데에도 벅찼고, 난민에 대한 다른 태도와 관계를 이야기하고 연습하고 키우는 노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덧붙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희망적이었던 것은 난민을 환영하고 만나는 실천들이 곳곳에서 조직되고 이어졌다는 점이다. 느리거나 말거나, 그렇게 변화는 조금씩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일련의 논쟁 속에서 내가 느꼈던 가장 큰 당혹감과 분노는 반-난민 담론과 가짜뉴스의 정치학이 젠더(기반) 폭력과 여성의 고통을 전시하고 배치하고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반-난민 담론의 정치학은 예멘 소녀들과 무슬림 여성들을 침묵하는 희생자로 간주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들을 ‘(근본주의와 가부장제 폭력에 의해) 손상된 성기와 자궁’으로 환원하고 그 이미지를 포르노그래피적으로 소비하면서 난민 혐오의 정동을 조직하였다. 나에게 이러한 전시와 재현의 방식은 성폭력에 맞서 싸우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해온

1)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총 561명의 예멘인이 입국했고, 그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 중 제주에서 난민심사를 받은 인원은 484명. 난민으로 인정된 건 2명이었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이었다.”

경향신문, “[커버스토리]그들과의 낯선 ‘동거’ 결국 우리의 삶이었다” 2020년 1월 18일자 [\[원문보기\]](#)

페미니즘의 모든 역사적 유산에 대한 전면적인 망각이자 배신으로 보였다. 잠깐 다른 곳에 기고했던 글을 다소 길게 인용해본다.

난민반대를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서술하고 전시하는 방식과 전략은 또한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윤리나 지향, 그리고 방법론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특정한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갖는 집단의 남성들을 야만적이고 폭력적이 존재로 본질론적으로 환원하는 정형화하는(stereotyping) 서술들은 성폭력의 원인이 남성의 통제불가능한 욕망이나 본능에 의해 일어난다는 생물학적 본질주의에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함의를 덧붙였을 뿐이다. 도시 공간을 배회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방인 집단이 갖는 위험성과 그것이 초래하는 여성의 불안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은 전반적인 사회통제와 장애인 등을 비롯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억압(시민권)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도 하였던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경험, 그리고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강화되는 반-테러리즘 정책에서 여성 인권이 안보의 대상으로 기획되고 배치되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한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떠도는 혐오 및 가짜 뉴스에서 무한 반복되는 무슬림포비아와 그것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핵심적인 동력으로서의 젠더(기반) 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상화는 그간 쌓아온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적 성과를 삭제한다. 상처받고 손상된 채 버려진 피해자로서의 예멘 소녀들과 여성들은 재현의 불가능성의 영역으로 내던져진 채 포르노그라피적으로 전시되었다. 그간 우리가 만나거나 그 안녕을 걱정해본 적 없었던 예멘 여성들과 소녀들은 이제 난민혐오의 정국 속에서 자신의 역사도, 문화도, 목소리도, 저항적 주체성도 박탈된 피해자로 존재로 소환되어 한국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요구하기 위한 증거물로 활용되었다. 결국 지난 몇 달간 각종 포털사이트와 여초 커뮤니티들, 그리고 SNS를 시끄럽게 하였던 절박한 ‘여성 인권’의 목소리 어디서든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기본적인 윤리와 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성 인권은 여성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로 치환되었으며 페미니스트 정치학은 시민권자 여성들의 일상과 권리를 보호하기 실천으로 축소되었다. 자신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재난으로 인해 삶의 기반을 상실하고 국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난민들에 대한 이해와 환대는 ‘국민이 먼저’라는 권리의식 앞에서 설 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불안과 공포는 나의 자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경계를 단단히 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을 격리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으며, 그 격리와 보호의 힘은 국가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고 상상되었다. 결국 난민혐오 담론을 추동한 주된 정동적 기제로서의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공포와 불안, 그리고 분노는 인종주의적 편견과 국가 권력의 재생산에 공모하는 페미니즘이 빠르고 쉽게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sup>2)</sup>

‘(여성) 안전’ 담론에 내포된 지배와 배제의 정치학은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계층, 장애,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차별의 기제들과 맞물리면서 작동한다. 부동산 투기와 더불어 슬럼화가 진행되는 도시는 중산층의 안락하고 깨끗한 공간과 가난한 자들의 위험하고 더러운 공간으로 나뉜다. 정신질환자, 고아, 장애인, 부랑인, 성매매 여성 등을 격리 수용하였던 ‘시설’의 오랜 역사에서부터 홈리스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소위 ‘방어적 건축(defensive architecture)’<sup>3)</sup>에 이르기까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과 거주 지역 알림이 제도에서부터 최근에 도입된 교육기관 취업제한에 이르기까지, 위험하거나 불순하다 여겨지는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과 장치들은 진화한다. 종교 근본주의와 가부장적 폭력에 억압당한 무슬림 여성들을 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미국의 중동지역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 팔레스타인에 대한 비인간적 폭력을 성소수자 친화 정책으로 덮으려는 이스라엘의 전략, 여성과 퀴어 등 소수자들을 혐오 폭력으로부터

2)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2호에 실린 “난민은 페미니스트 의제인가?”라는 제목의 글이다.

3) 이에 대응하는 예술가들의 유쾌한 퍼포먼스가 웹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https://designyoutrust.com/2020/01/archisuits-artist-creates-wearable-workarounds-for-defensive-architecture/>

터 보호하기 위해 (인권의식이 낮은) 난민과 이주민의 유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유럽의 반-이주 담론 등은 모두 유사하게 인종주의와 제국주의가 소수자 인권을 전략으로 활용하고 배치하는 구도를 보여준다.

범죄, 세금 부담, 일자리 부족, 젠더 폭력 등은 난민이나 이주민들이 외부에서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책임지고 풀어야 할 문제들이며, 마찬가지로 난민과 이주민을 배제하는 정책이 안전, 복지, 고용, 인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반대로 안전, 복지, 고용, 인권은 다양한 소수자들과 만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문화적 역량을 만들어갈 때 보장될 수 있다. 달리 말해 페미니즘과 난민인권은 그 자체로 대립되지 않는다.

페미니즘이 여성의 권리와 해방, 그리고 저항적 행위성을 사유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이 문화적 차이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어떻게 확장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며 더 정교한 사유와 진중한 대답을 필요로 한다. 성폭력이 여성들에게 잠재적 위협이자 실제적 현실인 가운데 여성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자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비난할 수 있는가? 특정한 문화나 종교가 (더) 여성혐오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에 대한 페미니즘의 응답은 무엇인가? 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배제와 혐오가 다른 소수자 집단의 ‘인권’으로 왜곡되는 오늘날 단지 ‘여성이나 소수자가 다른 소수자인 난민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 처방 혹은 부탁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페미니스트 정치학과 행위성의 양식은 무엇일까?

첫 번째 질문은 시민권에 대한 질문이며 특히 촛불 광장 이후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젠더 민주주의에 대한 사유를 필요로 한다. 제도적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이 동시에 진행된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나고 성장한 밀레니얼/메갈/청년 세대의 페미니즘은 (불법촬영 편파수사 반대시위에서 나타나듯) 권리의 정치학과 정체성의 정치학을 적절히 배합하며 국가를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며 (여남경찰 9:1 채용 구호에서 나타나듯) 나아가 여성의 주류화를 도모한다. ‘적폐’로 상징되는 오래된 기득권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편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열어주는 ‘개인화’가 사실상 고립과 취약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국민/시민’의 이름으로 ‘안전’과 ‘권리’를 외치게 된다. 그러나 권리의 정치학은 단지 국가가 독점적으로 소유한다고 상상되는 힘을 개인이나 집단에게 분배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과 장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권리를 소유와 분배의 대상이 아닌 실천과 생성의 영역으로 접근할 때 소수자 정치학의 장은 더 확장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가부장제’나 ‘여성혐오’ 혹은 차별과 폭력의 기제로서의 ‘젠더’가 갖는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시대적 차이들에 대한 질문이자 이러한 차이들을 때로는 배치하고 때로는 가로질러 작동하는 국제여성인권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역사에 대한 탐색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친숙한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의 이론과 역사는 상당부분 서구근대성의 권리적 주체나 68이후의 정체성의 정치학을 배경으로 삼는다. 이러한 권리와 정체성의 정치학은 또한 국경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다양한 맥락과 상황의 소수자 운동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저항을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종 ‘오래된’, ‘뒤쳐진’, ‘전통적인’ 것이라 상상하는 (하지만 사실은 매우 현재적인 실천인)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 혐오 또한 페미니즘 실천과 더불어 변화한다. 결국 사회문화적 구성으로서의 ‘젠더’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저항은 권리와 정체성이 왜 ‘사회문화적’ 문제인지를 사유 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재생산권은 고립된 개인의 자기완결적 결정이 아닌 복잡하고 (많은 경우 불평등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회문화적 관계들 속에서 경험되고 실천되며 따라서 성적 권리는 결국 사회경제적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인권의 이름으로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차이를 여성에 대한 혐오, 폭력, 차별의 (오래된, 근본적인,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비판하거나, 반대로/동시에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여성과 ‘진보된’ 사회가 되기를 요구하기보다는, 그러한 차별과 폭력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과 주체성을 세밀하게 살피는 자세와 관계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안전과 자기보호가 연대와 정의를 침식하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권리와 정체성의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페미니즘과 젠더정의는 어떤 모습으로 상상되어야 할지에 관련된다. 보다 현재적으로 이 질문은 폭력과 차별의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잠재적, 실제적 위치와 그에 따른 여성의 정체성 및 이해관계를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천이 어떻게 이해하고 번역하고 재현하는지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성적자기결정권이 '지켜야'할 대상이 아니라 '수행되어야' 할 미래적(인 동시에 회고적인) 가능성이려면, 여성의 자유와 권리와 안전 또한 결국은 실천 속에서 구현해야 할 무엇이 될 것이다.

# Beyond hate against refugees and 'racist' feminism

Bo-myung Kim (Busan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

번역 • 김우희 (난민인권센터 자원활동가)

In summer 2018, I participated in several panels and events and wrote short papers on refugee (issue) and feminism. Given the urgent and hysteric situation at the time, it was important to voice opposition against the imminent hate and exclusion that surfaced. Although in brief thoughts, I believe I was able to communicat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feminism and refugees cannot be that of hate, exclusion, and prejudice. Now that a year and a half has passed, and a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leased a legal response to the Yemeni asylum seekers and the #MeToo movement, protests against prejudiced investigations of illegal photography, and movement against anti-abortion laws have made some progress and change, what questions and discussions should we have on feminism, refuge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 the summer of 2018, the Jeju Yemeni refugee "incident" swept the country. The discourses of hate against refugees, which were unbearably heated like the unprecedented heat of that summer which accompanied global warming, left unanswered questions and tasks. The results of the refugee applications, which were announced in December of that year, granted refugee status to two applicants and humanitarian status that allows temporary stay to 412 applicants out of the 549 asylum seekers who applied for refugee status. Media and conservative groups that had been loud as usual in the fight for drawing boundaries of exclusion are now indifferent towards the Yemenis who live with us.

The Jeju Yemeni "incident", which happened after the candlelight protests of 2016 and alongside protests against prejudiced investigations of illegal photography and movement against anti-abortion laws have left us with numerous questions. Challenging questions that cannot be simply answered suddenly arose as imminent issues in the 'nationals first' slogans of anti-refugee protests, the image of '(our) women being raped (by Muslim men and immigrants)' that the group which organized the protests strategically disseminated, the fake news and politics of anti-truth that constructed such prejudice and hate as cultural and social realities, and the racism, anti-immigration hate, and politics on women's safety and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in Korean society. Immediate alternatives to all of these challenging issues, of course, did not surface. It was already overwhelming to read and trace the entangled threads of hate and attempts to speak of, practice, and nurture a different attitude and relationship towards refugees were only in their nascent stages. Despite all this, what gave hope was the practices of welcoming and meeting refugees that were organized and sustained in various places. Whether slow or not, changes continue bit by bit today.

The biggest anger and bafflement I felt amid the controversies were on the ways anti-refugee discourses and politics of fake news exhibited, arranged, and utilized gender-based violence and women's sufferings. The politics of anti-refugee discourses regarded Yemeni girls and Muslim women as silent victims and further organized anti-refugee sentiments by reverting them to 'damaged vagina and womb (damaged by essentialism and patriarchal violence)' and consuming them in pornographic ways. Such ways of exhibition and representation seemed to be totally oblivious and betraying of the entire historical legacies of feminism that fought against sexual violence and asserted women's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I cite part of my work published elsewhere:

Ways and strategies of narrating and exhibiting violence against women to mobilize hate against refugees also did not correspond to feminist politics' ethics, vision, and methodologies. Narratives that stereotype and essentialize men of specific racial, religious, and cultural backgrounds as barbaric and violent only add racial, cultural, and religious connotations to biological essentialism, which argues that sexual violence is caused by men's uncontrollable desire and instinct. Voices that emphasize the danger of unidentified groups of strangers who roam around in urban spaces and the anxiety this causes to women evoke past experiences during military dictatorships where social control and oppression against marginalized groups such as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justified under the pretense of ensuring safety of women and children (who hold citizenship) and the realities of women's rights being positioned as the subject of security in anti-terrorist policies that are being strengthened in the U.S., U.K., and France. Above all, historical accomplishments accumulated by the movement against sexual violence are erased by hate spread online, the repeated islamophobia presented in fake news, and the objectification of victims of gender-based violence that acts as a crucial force in disseminating islamophobia to the public. Yemeni girls and women, portrayed as victims who have been hurt, damaged, and abandoned, were cast into the realms of impossibility in representation and exhibited in pornographic ways. Yemeni women and girls who we had not met or been concerned about before were summoned as victims deprived of their history, culture, voice, and resistant agency and used as evidence to demand Korean women's safety and human rights in the political situation of hate against refugees. It was difficult to find the foundational ethics and consciousness of feminist politics in any of urgent 'women's rights' voices that made noise in various portal sites, female-dominant communities, and social media. Women's rights were substituted with women's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and feminist politics were minimized as practices of protecting the daily lives and rights of women with citizenship. Understanding and hospitality towards refugees who lost their basis of life due to extreme situations beyond their control or choice had no place to stand in front of the sense of entitlement that demanded 'citizens first'. It was imagined that the fear and insecurity experienced by women could only be resolved by securing one's place, tightening one's guard, and segregating factors that could cause danger, and that the power to protect and segregate could (only) be derived from the nation-state. Thus, the use of fear, insecurities, and anger about gender-based violence as the primary mechanisms for propelling discourses of hate

against refugees contributed to the rapid and easy increase in popularity of feminism that reproduces racial prejudice and state power.

The politics of dominion and exclusion implied in '(women's) safety' discourses are enacted in connection with discrimination regarding race, gender, sexuality, class, ability, culture, and religion. Urban spaces that are subject to real estate speculations and slums are divided into the comfortable and clean spaces of the middle class and the dangerous and dirty spaces of the poor. From the long history of 'facilities' that segregated the mentally ill, orphans, people with disabilities, vagrants, and sex workers to 'defensive architecture' that has been developed to protect buildings from the homeless, and from the requirement for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to wear 'electronic anklets' and notification system for the neighborhood in which they live in to the recently implemented restriction on their employment in educational institutions, technology and devices that maintain appropriate distance to people who are deemed dangerous or impure continue to evolve. The U.S. imperial invasion of the middle eastern region under the justification of saving Muslim women oppressed under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patriarchal violence, the Israeli strategy to cover up inhumane violence against Palestine with LGBTQ+ friendly policies, the European anti-immigration discourses that call for control over the influx of immigrants and refugees (who have low levels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to protect women, queer, and others who are marginalized by hate-oriented violence all similarly demonstrate the ways racism and imperialism strategically use and position minority rights.

Crimes, tax burden, lack of jobs, and gender-based violence are not issues that refugees and immigrants bring from outside, but are problems that have already existed, created by 'us' and that 'we' need to take responsibility in solving. Similarly, it is questionable whether policies that exclude refugees and immigrants can help with safety, welfare, employment, and human rights. On the contrary, safety, welfare, employment, and human rights can be guaranteed when we create a social system and cultural capacity that allow for meeting and coexisting with various people of marginalized backgrounds. In other words, feminism and refugee rights are not inherently antithetical to each other.

Contemplations on how feminism makes sense of women's rights and liberation, and resistant action, and questions and discussions on whether these could be expanded and reconstituted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nation-state and cultural differences are ongoing and require more elaborate consideration and in-depth response. As sexual violence represents potential threats and lived realities for women, can women's demand for the nation-state's responsibilities in their struggles to protect themselves (and their rights) be criticized? What is feminism's response to the undeniable fact that certain cultures and religions are (more) misogynistic? As exclusion and hate against one marginalized group are distorted as another group's 'human rights', what forms of feminist politics and action should we construct beyond normative prescription or plea of 'women or other minorities should not hate refugees who are yet another minority'?

The first question is about citizenship and requires contemplations on gender democracy in South Korean society after the candlelight protests of 2016 and feminism reboot. The feminism of millennial/megalia/youth generation who were born and raised after the 1990s when systematic



democracy and neoliberal social reorder simultaneously took place brings the nation-state to the negotiation table (as shown in the slogan for employment of female-male police in 9:1 ratio) by combining politics of rights and identities (as shown in the protests against prejudiced investigations of illegal photography) and aims for the mainstreamization of women. In the current Korean society where old privilege symbolized as 'deep-rooted evil' is still strong and late capitalistic society's introduction of 'individualization' has brought isolation and vulnerability, women are raising their voice for 'safety' and 'rights' under the name of 'national/citizen.' However, the politics of rights is not a process of distributing power that is imagined to be exclusively owned by the nation-state to individuals and groups, but a process of creating new social relationships and places. When rights are approached as spaces of practice and creation, rather than as those of ownership and distribution, the spaces of minority politics can expand further.

The second question is about cultural, religious, racial,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in 'patriarchy', 'misogyny', or 'gender' as a mechanism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t requires an exploration of the history of theory and praxis in the international women's rights movement, in which these differences sometimes collide and intersect at other times. Theories and history of the feminist women's movement that we are familiar with are mostly based on the rights-based agency of Western modernity or the politics of identity after 1968. Such politics of rights and identity also move across national borders and create new resistance as they intersect with minority rights movements of various contexts and situations. Likewise, the discrimination, violence, and hate against women that we often perceive to be 'old', 'outdated', and 'traditional' (but are actually very realistic practices) change through feminist praxis. Thus, critical consciousness and resistance against 'gender' as a sociocultural construction demands consideration of why rights and identities are 'sociocultural' issues. For instance,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and reproductive rights are not isolated individuals' self-contained decisions but are experienced and practiced in complex (and in many cases unequal and without possibilities of choice) sociocultural relationships. Thus, sexual rights are connected to socio-economic rights. Rather than criticizing or pointing to cultural, religious, and racial differences as the (old, fundamental, and structural) causes of hate,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under the name of women's rights, or contrarily/simultaneously demanding 'liberated' women who are freed from such restraints and 'advanced' society,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attitudes and relationships that closely examines the lives and agency of women who live through such discrimination and violence.

The third question is about how women, who are finding their voices as agents of their rights and identities in a neoliberal era where safety and self-protection erode solidarity and justice, should imagine feminism and gender justice. This question is also about how feminist theory and praxis should understand, translate, and revisit the potential and realistic position of women as 'victims'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nd the subsequent identities and interests of women. I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are not subjects of 'protection' but are futuristic (and at the same time retrospective) possibilities that should be 'enacted', women's freedom, rights, and safety should be constituted in practice.

# 1강. 난민 혐오와 '인종주의' 페미니즘을 벗어나

쟁점토론 • 야스민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번역 • 류태림 (난민인권센터 자원활동가)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this important lecture and be part of it. I read the script of the professor Bo-Myung Kim about beyond hate against refugees and racist "feminism" and actually, it is a little bit difficult to understand every point so I will give my impression through these papers base on my experience not only as a female refugee but also as a female Muslim.

I will start with the anti-refugees in Korea last year and how they show Muslims women as silent victims and the idea of Muslims men who abuse women. People around the world judge and generalized the idea of all Muslims men abusing women just because they are Muslims, but this is not true, not all Muslims, but you can find Muslims do this like any men around the world regardless of their identity or religion. Those men thought they have the right to abuse women. Every country has such people and every woman searches for her safety and right against violence. when people ask those men why you feel yourself more powerful than women? Their answer always is we follow our religion. In fact, there is no religion on the earth that supports violence of women or underestimated women, their ignorant and sick minds made them hide behind religion to dominate the woman. In my opinion, religion and Islam honored women, but customs and traditions spoiled many things.

The second thing that anti refugees said about female refugees they are silent victims, yes that's true we have victims, but they forgot to talk about the women who fight the idea of violence and don't allow themselves to be abused by men, they didn't know about women who defend on their rights and succeeded in obtaining their rights . I want to say something very important. Instead of talking about Muslims as victims let's talk about their rights in life. Most of these victims' women are under the pressure of war and difficult life that prevented them from fighting for their rights as women and only made them think about how to survive and how to protect herself and her children from starvation. When anyone talks about Muslims refugees please think deeply about their situation in the war think also about other women who struggle on their rights despite the war, I want to tell them it's not fair to call yourselves as feminists and called them as victims.

The last point I want to talk about is Yemenis females' refugees. Compare with other refugee men here in Korea. Men have the opportunity to integrate into society and make friends. For women is difficult to study, work, and raise children at the same time, even if she gets the opportunity to work "Hijab" will be a problem. "Hijab" shows their Islamic identity and many people didn't accept this. Many young Korean women ask me about "Hijab" why I wear it what is the idea

of covering your hair? They cannot understand "Hijab" is part of our faith is part of our identity. My hijab reminds me of my mother, my family, my friends, my good memories and my relationship with GOD. here in Korea, I have the chance to take it off but I choose to be Yasmin who has faith and believes no one and nothing can change me.

Finally, I want to say for anti- refugees and who also with refugees' feminists unite with Muslims feminists to save and help the victims of violence.

의미 있는 강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명 교수님의 난민혐오 및 인종주의와 페미니즘에 관한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교수님의 모든 논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난민 여성으로서 그리고 무슬림 여성으로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저의 소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한국에 등장한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그룹과 이들이 만들어낸 침묵하는 피해자로서의 무슬림 여성상 그리고 여성 학대의 가해자로서 무슬림 남성을 일반화하는 이들의 인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무슬림 남성이 그저 무슬림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재단하고 일반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모든 무슬림 남성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무슬림 남성 가운데 이러한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도 있지만 세상에는 자신의 정체성 및 종교와 관련 없이 여성을 학대하는 남성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여성을 학대할 수 있는 권리의 담지자라고 여깁니다. 모든 국가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이 존재하고 모든 여성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권리를 찾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자신이 여성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종교를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옹호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종교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들의 무지하고 왜곡된 정신은 남성으로 하여금 종교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 여성을 지배하도록 합니다. 종교 그리고 이슬람은 여성을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습과 전통은 많은 것들을 훼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이들은 난민 여성이 침묵하는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폭력에 맞서 자기 자신을 남성의 학대로부터 지키고자 투쟁해 온 여성들에 대한 언급을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쟁취해 낸 여성들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슬림을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대다수의 피해 여성들은 전쟁과 생활의 압박에 처해 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권리 투쟁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들은 오로지 생존의 방법과 자신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기아로부터 지켜내는 방법을 찾기 위해 분투합니다.

무슬림 난민에 대해 말할 때 전쟁 속 그들이 처한 상황에 관해 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쟁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또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시고, 본인을 페미니스트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을 단순히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마지막으로 예멘 난민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들을 한국에 있는 난민 남성들과 견주어 보십시오. 남성들에게는 사회통합과 교우관계를 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성들은 학업과 취업, 육아를 동시에 하기 어렵습니다.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히잡” 착용이 문제로 작용합니다. 히잡은 무슬림으로서

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체성의 표현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제게 히잡을 착용하는 이유와 머리카락을 가리는 의미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들은 히잡이 무슬림의 신앙과 정체성의 일부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히잡은 제게 어머니와 가족, 친구들, 행복한 기억 그리고 신과의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한국에서 히잡을 벗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야스민이기를 스스로 선택하였고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이들과 난민과 함께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무슬림 페미니스트와 연대하여 폭력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